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안 하 안 서 영 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이론 및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주요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대처 관련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소재 8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자료 분석 결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애착불안은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반응은 정서적 과민반응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회피는 피드백에 대한 무관심 반응, 정서적 단절 또는 사회적 지지 추구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애착회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적 단절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주요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 본 연구는 안하안(2009)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대학상담센터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의 주요 호소 문제를 살펴보면, 우울 및 불안 등 심리내적인 문제나 대인관계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09;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2008;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이를 반영하듯,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생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애착이론을 토대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들이 지속되어 왔는데(Lopez & Brennan, 2000), 많은 연구에서 불안정한 성인 애착 패턴이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김민선, 서영석, 2010; Lopez & Gormley, 2002; Lopez, Mauricio, Gormley, Simko, & Berger, 2001;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Wei, Heppner, & Mallinckrodt, 2003;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Wei, Vogel, Ku, & Zakalik, 2005),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장희, 조윤주, 2006; Lopez & Gormley, 2002; Lopez et al., 2002; Mikulincer, Hirschberger, Nachmias, & Gillath, 2001; Mikulincer & Shaver, 2001; Wei et al., 2005).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계중심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애착이론이 심리내적인 문제와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적 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이론은 인간 욕구의 핵심과 성장의 기반을 관계라고 보고,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인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초기 애착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심리적 표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한다

(Bowlby, 1973, 1980; Bretherton, 1985; Sroufe & Waters, 1977). 내적작동모델은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건강의 기초가 되며 지속적으로 맺게 되는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고(Ainsworth, 1989), 자기통합감과 자기가치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Mikulincer, 1995). 특히,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시간이 지나거나 대상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었다(Hamilton, 2000;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Ryan, Stiller, & Lynch, 1994; Sagi et al., 1994; Scharfe & Bartholomew, 1994; van IJzendoorn, 1995). 그러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애착이 형성될 수 있고(장휘숙, 1997; 황창순, 2006; Hazan & Shaver, 1987; Kirkpatrick & Davis, 1994),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나 연인으로 옮겨가며(김수경, 2004; Furman & Buhrmester, 1992; Hazan & Zeifman, 1994; Weiss, 1982),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애착유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더욱이, 아동기 이후에 경험하는 사건들(예, 부모의 이혼)로 인해 개인의 애착유형이 변하고(Lewis, Feiring, & Rosenthal, 2000), 짧게는 1주일에서 수개월 사이, 길게는 2-4년 후에 사람들의 애착유형이 변했다는 종단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Baldwin & Fehr, 1995; Davila, Burge, & Hammen, 1997; Kirkpatrick & Hazan, 1994; Lopez & Gormley, 2002; Scharfe & Bartholomew, 199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애착을 연구함에 있어서 애착의 측정 대상 및 시점을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하듯,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애착과 관련된

성인기 외부세계 또는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지칭하면서, 성인애착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 및 척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몰두하며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차원을 의미하고, 애착회피는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들어 애착 연구자들은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어온 변인들(예, 인지적 개방성, 사회적 지지 추구)을 탐색하거나(Collins & Feeney, 2000; Collins, Guichard, Ford, & Feeney, 2004; Fraley & Shaver, 1998; Li & Yang, 2009; Mikulincer & Florian, 1998; Seiffge-Krenke & Beyers, 2005), 성인애착이 준거변인(예,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떤 변인(예, 낮은 자존감과 역기능적 사고,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 인식, 자기 분열과 자기 은폐,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정적 정서와 대처 효능감, 문제중심대처, 부적응적인 문제 대처방식, 정서적 대처)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Creasey & Hesson-McInnis, 2001; Lopez, et al., 2001; Lopez et al., 2002; Roberts, Gotlib, & Kassel, 1996; Wei et al., 2003; Wei et al., 2004; Wei et al., 2005; Mallinckrodt & Wei, 2005).

이는 성인애착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성인애착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론화하고 검증함으로써 애착의 문제를 보이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과정 변인들을 찾아내어 구체적인 개입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성인애착 이론을 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다양한 심리적 과정변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특정 반응이나 문제를 야기한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잠재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검증하면 비교적 모형이 간명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또한 개입변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인지, 정서, 대처 관련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외현적인 문제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단 하나의 매개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그 효과를 확인하는 접근은 실제로 발생하는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성인애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변인들을 과정변인으로 채택하여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정변인 간 상호인과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과정변인들을 동시에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결국 상담실제에서 보다 더 중점을 두고 개입해야 할 변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애착에 영향을 받는 심리내적 과정변인들의 선후관계를 고려하면서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 제안되고 이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이론 및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났거나

매개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 정서, 행동 변인 간의 인과적 선후관계를 설정하고, 통합적 이론모형의 적합도 및 개별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성인애착이 관계에 초점을 두는 개념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 또한 관계중심적인 변인(인지적 개방성,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을 채택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아래에서는 성인애착의 이론적 틀 안에서 성인애착과 인지적 개방성, 정서적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 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적인 이론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인애착과 인지적 개방성

Collins 등(2004)은 내적작동모델에 영향을 받는 인지적 과정으로 선택적 주의, 인지적 개방성, 기억, 대인관계 구성개념(social construal)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안전 애착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요 타인에게서 받은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인지적 개방성과 연계해서 설명하였다. 애착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정보에 대한 인지적 개방성이 높을수록 세상에 대한 현실적 안목이 발달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지적 오류가 적으며(Mikulincer & Arad, 1999), 현실적인 대처 계획을 세워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kulincer & Florian, 1998). 또한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Carnelley, Israel, & Brennan, 2007), 동시에 피드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ennan &

Bosson, 1998; Carnelley et al., 2007).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성향이 강했다(Carnelley et al., 2007). 반면,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피드백에 대해 덜 개방적이고, 피드백에 가치를 덜 부여하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rennan & Bosson, 1998; Carnelley et al., 2007).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선호하면서도 피드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과도한 재확신 추구 성향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귀는 사람의 피드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Carnelley et al., 2007).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추구하면서도 피드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태도를 취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더 많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애착회피가 강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피드백에 대해 무관심하고 피드백을 구하는 행동 자체를 꺼린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감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부인하거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경향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Griffin & Bartholomew, 1994). 그러나 이러한 거리두기와 회피적 행동은 일시적으로 상실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Wei et al., 2005; Young, Klosko, & Weishaar, 2005).

비록 몇몇 연구에서 성인애착이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지만,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주장만이 있을 뿐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지 과정인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어떤 심리내적 과정을 통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국내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에 따라 인지적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틀 안에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인으로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에 따라 상대방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심리적 변인들을 설정하고, 성인애착의 두 차원과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인애착과 정서적 대처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대처¹⁾를 매개

1)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방식을 문제중심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중심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정서중심대처를 ‘문제에 대해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방식

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타인과의 정서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다른 정서적 대처전략, 즉 과잉활성화 전략인 정서적 과민반응과 비활성화 전략인 정서적 단절을 각각 발달시킨다(Fonagy, 2005; Shaver & Mikulincer, 2002). ‘정서적 과민반응(emotional reactivity)’은 환경 자극에 대해 쉽게 감정에 휩싸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것 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타인에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은 내적 정서 경험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지나치다고 느낄 때 정서적으로 방어하거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kowron & Friedlander, 1998). 실제로,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사소한 위협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심리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함으로써 애착대상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Mikulincer & Florian,

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Young 등(2005)은 역기능적 심리도식에 따른 대처방식을 과잉보상(compensation), 회피(avoidance), 유지(maintenance)로 구분하였다. 이 중 ‘과잉보상’은 역기능적 심리도식에 맞서 과하게 대항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과하게 요구하거나, 상대가 도망갈 정도로 매달리며 숨 막히게 하는 행동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반면, ‘회피’는 역기능적 심리도식을 촉발할 수 있는 사고와 심상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진솔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회피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Lazarus와 Folkman(1984)의 정서중심대처 그리고 Young 등(2005)의 과잉보상 및 회피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을 정서적 대처방식으로 간주하였다.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들을 억압하며, 사람들과의 인지적·정서적·물리적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을 피하려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Fraley & Shaver, 1997; Mikulincer & Orbach, 1995; Shaver & Mikulincer, 2002; Woodhouse & Gelso, 2008).

한편, Wei 등(2005)은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과민반응은 애착불안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정서적 단절은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 등의 연구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이 서로 다른 정서적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과, 정서적 과민반응과 단절이 서로 다른 준거변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백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관계에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과연 Wei 등의 연구결과가 재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대처만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기 때문에, 다른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동시에 설정했을 경우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 등 정서적 대처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구조적 관련성 및 정서적 대처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인애착과 사회적 지지 추구

Lazarus와 Folkman(1984)은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의지하는 대처자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추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타인에게 구체적인 조언이나 정서적 지지를 구하는 적극적 대처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Endler & Parker, 1990).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를 포함한 적극적 대처는 심리적 안정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김정희, 1987; Valentiner, Foa, Riggs, & Gershuny, 1996),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좀 더 건강한 행동에 개입하며(Lee & Liu, 2001), 불안 수준이 낮고(최미경, 조용래, 2005), 대학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선, 2004).

한편, 성인애착은 근접성 추구(proximity-seeking)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방식이나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안전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부모나 친구와 같이 비공식적 지지원 뿐만 아니라 교사나 상담자 등 공식적인 지지원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Larose & Bernier, 2001; Mikulincer & Florian, 1998; Seiffge-Krenke & Beyers, 2005). 또한 불안전 애착을 지닌 사람들에게 비해 타인에게 정서적, 도구적 지지를 구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wlby, 1988; Kobak &

Sceery, 1988; Li & Yang, 2009; Mikulincer & Florian, 1998; Simpson, Rholes, & Nelligan, 1992). 반면,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은 공항과 같은 이별 장면에서 근접성 추구나 지지 추구를 덜 하고,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근접성 추구나 지지에 대한 요청을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 울거나 토라지는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 Feeney, 2000; Fraley & Shaver, 1998). 이렇듯, 성인애착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다르고, 사회적 지지 추구는 심리적 안정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이 사회적 지지 추구를 매개로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 및 가설

지금까지 살펴본 성인애착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성인애착 두 차원(애착불안, 애착회피)은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과 대처 관련 변인인 정서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인들은 다시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과정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Young 등(2005)과 Collins와 Read(1994)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대처방식(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Young 등(2005)은 기억이나 인지 등을 포함한 심리도식과 행동반응을 구분했는데, 행동은 심리도식의 일부가 아니라 대처반응의 일부로서 심

리도식이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llins와 Read(1994)는 일단 애착 관련 사건이나 기억에 의해 내적작동모델이 활성화되면 내적작동모델은 인지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인지 과정은 다시 행동전략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이 인지 과정인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에 대한 반응은 다시 대처방식인 정서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한편, 피드백에 대한 반응과 대처방식 간 관계를 탐색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방향이 정적인지 또는 부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는 모두 대처방식의 하위 차원으로 간주하여(Lazarus & Folkman, 1984; Young et al., 2005), 인과적 선후 관계없이 병렬로 배치하였다. 셋째, 애착이론과 선행 연구(e.g., Wei et al., 2005)를 토대로 애착불안에서 정서적 단절로 가는 직접 경로와 애착회피에서 정서적 과민반응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설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애착불안은 피드백 긍정반응과 부정적 반응에는 정적인 영향을, 무관심반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애착회피는 피드백 긍정반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반응과 무관심반응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애착불안은 정서적 과민반응에, 애착회피는 정서적 단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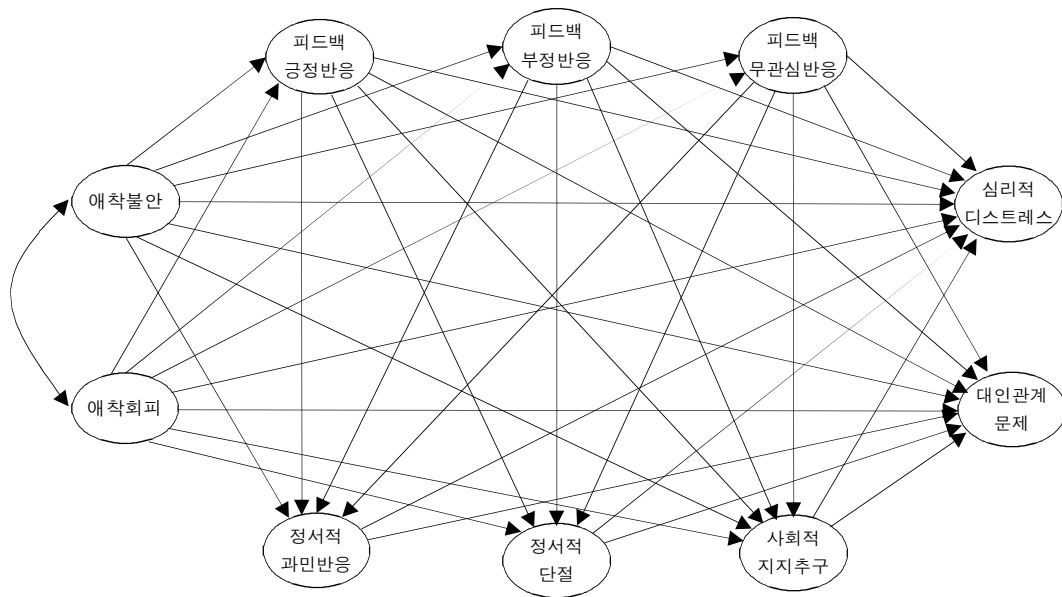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사회적 지지 추구에 각각 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피드백 긍정반응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 부정적 반응과 무관심반응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곱째,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덟째, 사회적 지지 추구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홉째, 애착불안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과민반응, 사회적 지지 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열째, 애착회피가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단절,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관련 변인들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처 관련 변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 소재한 8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은 총 425명이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24명의 자료를 제외한 401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01명 중 남학생이 135명(33.7%), 여학생이 263명(65.6%), 미기재 3명

(0.7%)으로 여학생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았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65세($SD = 2.19$)였으며, 학년별로는 2학년 163명(40.6%), 4학년 103명(25.7%), 3학년 96명(23.9%), 1학년 33명(8.2%), 미기재 6명(1.6%) 순으로 2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01명 중 연인을 떠올리며 응답한 사람은 275명(68.6%), 가장 친한 친구는 73명(18.2%), 어머니나 아버지를 떠올리며 응답한 사람은 각각 9명(2.2%), 1명(0.3%), 미기재 43명(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을 제외한 설문문의 총 문항수는 172문항이었으며, 설문에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 조사는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소정의 상품을 지급받거나 수업에서 추가로 점수를 부여받았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척도와 정서적 과민반응 그리고 정서적 단절의 일부 문항들에 대해 번안 또는 번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척도 번안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선, 연구자들이 원문을 한국어로 번안하였고, 이것을 심리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의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사용자가 역 번역(back translation)을 실시하였다. 이후, 원문항과 역번역된 영어 문항에 대해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사용자인 심리학 학부생 2명이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동일성 평정을 실시하였다. 두 명의 평균 점수가 4점 이하인 문항들에 대해 연구자들이 다시 검토하여 해당 문항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번안을 완료하였다.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CR-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ECR-R은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를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개정한 것이다. ECR-R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2개의 독립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애착회피는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한 정도를 측정한다. 각 하위 차원별로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고 애착이 불안 전함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ECR-R은 ‘불특정한 사람들(others)’을 떠올리며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인 Brennan 등(1998)이 만든 본래의 검사에서와 같이 ‘사귀는 사람(romantic partner)’을 떠올리며 평정하도록 하였다(예, “사귀는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현재 사귀는 사람 또는 최근에 사귀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평정하되, 연인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 어머니 등을 떠올리며 평정하도록 하였고, 검사를 완료한 후 누구를 떠올리며 평정하였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두 가지 차원 모두 우울 및 무망감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et al., 2004), 우리나라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애착 불안과 애착회피 2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현, 2004). ECR-R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애착불안이 .68-.93, 애착회피가 .71-.95인 것으로 나타났다(Fraley & Waller, 1998; Lopez & Gormley, 2002).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애착불안이 .89, 애착회피가 .8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9와 .90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개방성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개방성을 ‘주요 타인에게서 받은 피드백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하고, Brennan과 Bosson(1998)이 제작한 파트너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 척도(reactions to partner feedback)를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무관심한 반응 등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반응’은 파트너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수용·만족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의미하고, ‘부정적 반응’은 파트너의 피드백으로 인해 고통, 자기 회의, 상처 등과 같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는 경향을 반영하며, ‘무관심한 반응’은 피드백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Brennan & Bosson, 1998).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평정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단절 척도의 문항과 내용이 비슷한 두 개의 문항(“가끔 나는 사귀는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나면 피드백 때문에 생긴 나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사귀는 사람의 피드백을 듣고 나면 나는 사귀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려

는 경향이 있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성인애착 척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에 사귀었던 사람을 떠올리며 평정하되, 연인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 어머니 등을 떠올리며 평정하게 하였고, 이후 누구를 떠올리며 평정했는지를 기록하게 하였다. Brennan과 Bosson(1998)은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37.7%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Brennan과 Bosson(1998)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긍정적 반응이 .80, 부정적 반응이 .90, 무관심한 반응이 .83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반응 .82, 부정적 반응 .83, 무관심한 반응 .85로 각각 나타났다.

정서적 대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대처를 정서적 과민 반응과 정서적 단절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Skowron과 Friedlander(1998)가 제작하고 조은경(2001)이 번안한 자기분화 척도(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SI)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에 번안된 문항들과 원척도의 문항들을 비교하여 일부 문항의 번안 내용을 수정하고 빠진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번안 수정은 피드백에 대한 반응 척도의 번안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기분화란 대인관계에서 정서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 그리고 친밀함과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Bowen, 1978). DSI는 정서적 과민반응(emotional reactivity), 자기 입장(I position), 정서적 단절(emotional cutoff), 타인과의 융합(fusion with others) 등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에 따른 과잉

활성화 전략과 비활성화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DSI 중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 척도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과민반응’은 환경 자극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강도나 정서적 불안정성 및 타인에 대한 과민성 정도 등을 측정하고, ‘정서적 단절’은 정서적으로 방어하거나 부인하는 정도 또는 감정이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고립시키는 정도를 측정한다. 정서적 과민반응은 11문항, 정서적 단절은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까지 6점 척도로 평정한다. Skowron과 Friedlander(1998)의 연구에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는 반면, 정서적 단절이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척도의 공인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정서적 과민반응이 .83-.88, 정서적 단절이 .79-.84로 나타났고(Skowron & Friedlander, 1998; Wei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과민반응 .83, 정서적 단절 .79로 각각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추구

사회적 지지 추구를 측정하기 위해 Endler와 Parker(1990)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척도(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 CISS)를 조한익(1999)이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스트레스 대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적극적 대처방식(문제중심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자기 위로 능력)과 2개의 소극적 대처방식(정서중심대처, 회피적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추구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추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거나 정서적 지지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측정한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의 내적일치도는 .86-.90(이민수, 2000; 한정아, 심홍섭, 2005)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정신건강의 부정적 상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Veit와 Ware(1983)의 연구에서 개념화한 내용을 근거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우울과 불안을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주요 지표로 사용하였다.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Derogatis(1977)가 개발하고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한국문화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총 9개의 증상을 측정하는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울’은 삶에 대한 희망 상실, 동기 결여, 활력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을 13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불안’은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10개 문항으로 측정한다. 각 문항은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3점)’, ‘아주 심하다(4점)’의 5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고, 하위 척도의

점수 합산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Derogatis(1977)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우울이 .90, 불안이 .85로 나타났고, 임규혁(1997)의 연구에서는 우울 .86, 불안 .85로 각각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 모두 .89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홍상황 등(2002)이 제작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 8개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 차원마다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8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0-.78로 나타났고, 친애와 통제-지배 2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냉담, 비사회성, 자기희생, 과관여를 ‘친애’차원으로, 비주장성, 과순응성, 통제지배, 자기중심성을 ‘통제-지배’차원으로 구분하여 2개의 요인 지표로 설정하였다. 홍상황 등(2002)의 연구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61-.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가 .91, 각 하위 차원의 내적일치도는 .67-.85의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잠재변인을 구인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가 제안한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을 사용해서 잠재변인을 구인할 경우 추정할 모수가 많아져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 문항의 합 또는 평균으로 변인을 구인할 경우 한 개의 측정치로 잠재변인을 구인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변인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잠재변인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Russell 등이 제안한 항목 묶기 방법을 채택하였다. 항목 묶기 방법은 최대우도법과 같이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정 방법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ttl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 대해 요인부하량을 항목 합산하여 각 변인마다 3개의 지표를 생성하였다. 요인부하량에 따른 항목 합산을 위해, 먼저 각 변인에 대해 요인 수를 1로 지정한 후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을 묶는 방식으로 각 지표에 속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평균이 같도록 만들었다. Amos 7.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χ^2 값뿐만 아니라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모형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

준편차, 첨도 및 왜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각 변인의 첨도와 왜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짓고(Curran, West, & Finch, 1996),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측정변인 간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고, 측정변인의 합을 토대로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그 값이 1.5-2.3 사이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05, N = 401) = 901.87, p < .001; CFI = .92; TLI = .90; RMSEA = .07, 90\%$ 신뢰구간 [CI] = .065, .075. 잠재변인 간 상관인 -.01에서 .65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변인들에 대한 해당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79-.92, 애착회피는 .84-.91,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은 .52-.85, 피드백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76-.83, 피드백에 대한 무관심 반응은 .70-.83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과민반응은 .75-.82, 정서적 단절은 .71-.79, 사회적 지지 추구는 .83-.90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 또한 측정변인들에 대해 각각 .89-.93, .82-.95의 요인부하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p < .001$), 28개의 측정변인으로 10개의 잠재변인

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11, N = 401) = 847.60, p < .001; CFI = .93; TLI = .91; RMSEA = .066, 90\%$ 신뢰구간 [CI] = .06, .07. 또한 성인애착,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변인들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변량의 37.1%, 대인관계문제 변량의 5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경로 계수들을 살펴보면(그림 2), 우선 애착불안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고, 애착회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만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애착불안은 피드백 긍정반응 및 부정적 반응과는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무관심반응과는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셋째, 애착회피는 피드백 긍정반응과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고 부정적 반응 및 무관심반응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연구가설 또한 지지되었다. 넷째, 애착불안은 정서적 과민반응과, 애착회피는 정서적 단절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네 번째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다섯째, 애착회피만이 사회적 지지 추구에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섯 번째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여섯째, 피드백 긍정반응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부적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 피드백 무관심반응은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섯 번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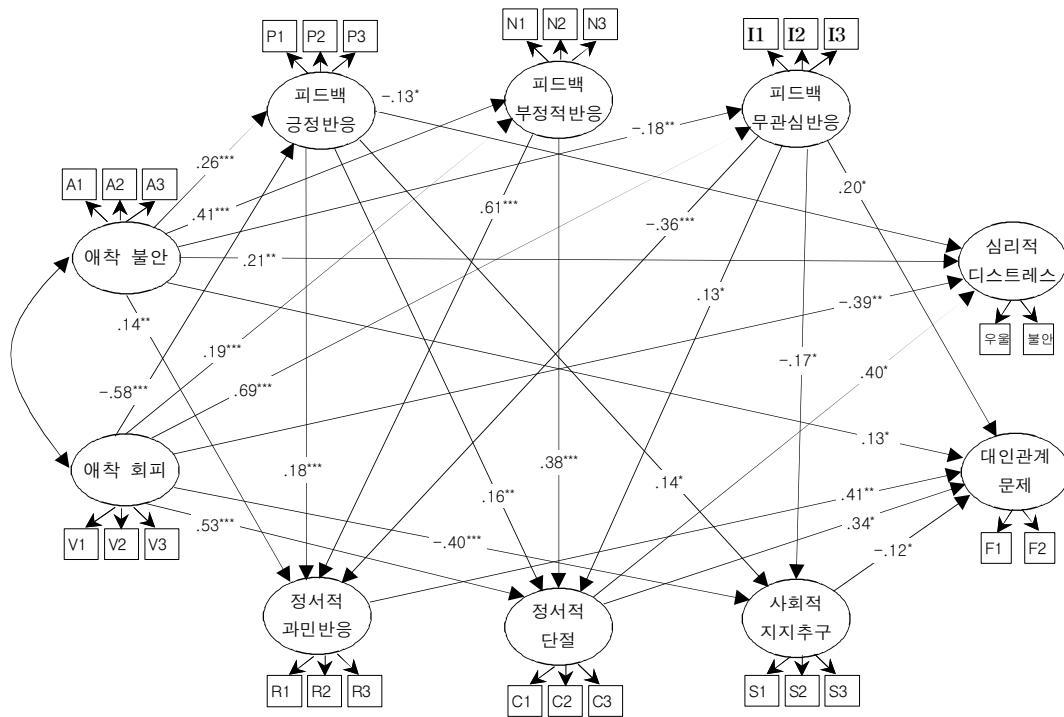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경로계수

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삭제하였음. A1-A3 = 애착불안 측정변인; V1-V3 = 애착회피 측정변인; P1-P3 =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반응 측정변인; N1-N3 = 피드백에 대한 부정적 반응 측정변인; I1-I3 = 피드백에 대한 무관심한 반응 측정변인; R1-R3 = 정서적 과민반응 측정변인; C1-C3 = 정서적 단절 측정변인; S1-S3 = 사회적 지지 추구 측정변인; 우울, 불안 = 심리적 디스트레스 측정변인; F1-F2 = 대인관계문제 측정변인.

* $p < .05$. ** $p < .01$. *** $p < .001$.

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일곱째, 정서적 과민반응은 대인관계문제와만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반면, 정서적 단절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및 대인관계문제 모두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곱 번째 연구 가설 또한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 추구는 대인관계문제와만 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덟 번째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11개의 간접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우선, 애착불안이 독립변인인 3개의 간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애착불안 → 정서적 과민반응 → 대인관계문제, 애착불안 → 피드백 긍정반응 → 정서적 과민반응 → 대인관계문제, 애착불안 → 피드백 부정적 반응 → 정서적 과민반응

표 2.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	경로		간접효과	Sobel Test (z)
	매개변인	종속변인		
애착불안	→ 정서적 과민	→ 대인관계문제	.06*	2.04
	→ 피드백 긍정적 반응 → 정서적 과민	→ 대인관계문제	.02*	2.02
	→ 피드백 부정적 반응 → 정서적 과민	→ 대인관계문제	.10*	2.54
애착회피	→ 피드백 무관심 반응	→ 대인관계문제	.14*	1.97
	→ 정서적 단절	→ 심리적 디스트레스	.21*	2.02
	→ 정서적 단절	→ 대인관계문제	.18*	1.97
	→ 사회적 지지 추구	→ 대인관계문제	.05*	2.01
피드백 긍정적 반응	→ 정서적 과민	→ 대인관계문제	.33*	2.24
피드백 부정적 반응	→ 정서적 과민	→ 대인관계문제	1.36**	2.66
피드백 부정적 반응	→ 정서적 단절	→ 심리적 디스트레스	.64*	2.01
피드백 무관심 반응	→ 정서적 과민	→ 대인관계문제	-.70*	-2.55

주. Sobel 검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간접효과만 제시하였음. 효과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 $p < .05$. ** $p < .01$.

→ 대인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애착 불안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고려했을 때,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는 피드백에 대한 긍정반응, 부정적 반응, 그리고 정서적 과민반응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아홉 번째 연구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애착회피를 독립변인으로 포함하는 간접경로 중 4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애착회피 → 피드백 무관심반응 → 대인관계문제, 애착회피 → 정서적 단절 → 심리적 디스트레스, 애착회피 → 정서적 단절 → 대인관계문제, 애착회피 → 사회적 지지 추구 → 대인관계문제).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는 피드백에 대한 무관심 반응, 정서적 단절,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를 통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애착회피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정서적 단절은 애착회피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열 번째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독립변인으로 포함하는 간접 경로 중 4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피드백 긍정 반응 → 정서적 과민반응 → 대인관계문제, 피드백 부정 반응 → 정서적 과민반응 → 대인관계문제, 피드백 부정 반응 → 정서적

단절 → 심리적 디스트레스, 피드백 무관심 반응 → 정서적 과민 반응 → 대인관계문제). 따라서 정서적 과민반응은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피드백에 대한 무관심 반응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단절은 피드백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열한 번째 연구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이론 및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의 두 차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거나 추정되어온 인지, 대처 관련 변인들 간의 복합적인 인과적 관계를 설정하고, 성인애착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관련성 및 상담실제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적 대처뿐만 아니라 적극적 대처방식인 사회적 지지 추구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Young 등(2005)과 Collins와 Read(1994)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지적 개방성인 주요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정서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애착의 두 차원은 주요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에 대한 반응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대처방식은 다시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할 뿐 아니라 몇 개의 경로에서 피드백에 대한 반응과 대처 관련 변인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고,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정서적 대처 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애착 이론가들이 가정해왔던 인지 변인과 대처 관련 변인 간 인과적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애착불안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정서적인 영향을 미칠 뿐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과민반응이 애착불안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한다는 Wei 등(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두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가능성은 두 연구에서 정서적 과민반응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 백인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 Wei 등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정서적 과민반응($\beta = .39, p < .001$), 정서적 과민반응이 심리적 디스트레스($\beta = .40, p < .001$)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영향력이 작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 p < .01$; $\beta = .31, C.R. = 1.86, p > .05$). 두 연구에서 정서적 과민반응의 역할이 서로 다른 이유는, Wei 등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대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추구 및 인

지 변인들을 함께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만큼 정서적 과민반응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두 문화에서 정서적 과민반응이 사용되고 수용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미국에서는 정서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계에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격려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Wei 등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드러난 정서적 과민반응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해석, 즉 본 연구에서 더 많은 매개변인들이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정서적 과민반응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결국 정서적 과민반응의 매개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이론모형과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문화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정서적 과민반응에 대한 애착불안의 직간접 효과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그리고 정서적 과민반응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본 연구결과는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문제 간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선행이론가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Mikulincer & Florian,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즉,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사건을 과장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에 처할 경우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애착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상대방에게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대인관계문제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를 정서적 과민반응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한 Wei 등(2005)의 연구와 일치하며,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타인의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Brennan & Bosson, 1998; Carnelley et al., 2007)와 일치한다.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과도한 재확인 추구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과도한 재확인 추구 성향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그 자체를 선호하여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자신에 대한 평가나 거절, 또는 버림의 신호로 여겨 피드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은 정서적 과민반응을 포함할 경우에만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드백에 대한 반응만으로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서적 과민반응”이라는 대처방식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애착불안이 강할수록 타인의 피드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지나친 의존은 정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토대가 되어 결국 대인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애착회피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서적 단절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단절의 완전매개효과를 보고한 Wei 등(200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애착회피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경로계수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듯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닐 경우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존재함을 시사한다(Cohen, Cohen, Aiken, & West, 2002). 이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 시 산출된 애착회피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상관관계수($r = .11, p < .05$)와 매개모형 검증에서의 직접경로계수($\beta = -.39, p < .01$)를 비교한 결과, 관계의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매개모형에서 절대 상관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 단절의 억제효과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어떤 변인(C)이 억제효과를 지닌다는 것은 변인 A가 변인 B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억제변인을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통제를 가하지 않은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C가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결과에 적용하면, 비록 매개모형 검증에서는 애착회피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큰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애착회피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단절이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변인 간 상관이 정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정서적 단절의 억제효과

로 인해 애착회피가 강할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장면에서는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애착회피가 강할수록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억압하고 위협적인 신호를 인지적으로 막는 등의 대처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Mikulincer와 Florian(1998)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직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미했던 애착불안과는 달리, 애착회피는 피드백에 대한 무관심 반응과 정서적 단절, 또는 사회적 지지 추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애착회피가 강할수록 피드백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는 Brennan과 Bosson(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정서적 단절의 완전매개효과는 정서적 단절의 부분매개효과를 보고한 Wei 등(200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애착회피가 강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적게 하고 결국 대인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Shaver와 Mikulincer(2002)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들은 애착회피가 강한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애착회피가 강할수록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부인하는 대신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Griffin & Bartholomew, 1994) 주요 타인에게 받은 피드백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며, 인지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Shaver & Mikulincer, 2002) 관계에서 낮은 정서적 관여를 보일 뿐만 아니라(Bartholomew & Horowitz, 1991)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Woodhouse & Gelso, 2008), 결국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문제 간 관계에서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불안의 경우에는 피드백에 대한 긍정반응 또는 부정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정서적 과민반응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애착회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상담자가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고통 또는 대인관계문제 등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내담자의 성인애착 관련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인애착의 두 차원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 뿐 아니라 과정변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작동모델을 탐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Marrone, 2007). 즉, 비록 내적작동모델이 불안정하더라도 그것이 내담자의 적응을 위해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내담자의 관계패턴이 일상적인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치료적 관계 형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내적작동모델이 수정 가능할 뿐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복잡한 형태로 발달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는 곧 ‘애착 심리치료(attachment-oriented psychotherapy)’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인애착의 두 차원이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과 정서적 대처,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 등을 통해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과정에서는 내담자의 성인애착 패턴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인지적 개방성 및 대처 관련 변인들을 치료적 중재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들 과정변인들에 대해 적절한 개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내담자일수록 상담자의 피드백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상담자의 피드백을 자신에 대한 평가 및 거절로 인식해서 결국 정서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상담자는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내담자를 대함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적 거리(therapeutic distance)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담 초기에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욕구 및 기대를 수용해서 내담자와의 관계를 가깝게 유지하지만, 상담이 진행되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치료적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Katherine & Brent, 2009).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지나친 요구나 불안을 직면시키고, 내담자의 관계욕구에 대한 상담자의 내적 반응을 즉시적으로 반영해주는 기법을 사용하거나, 상담자의 피드백에 대한 내담자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이 상담자 및 내담자, 그리고 상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줌으로써 내담자 반응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인지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통해 내담자는 관계에 대한 자신의 기대 및 반응, 상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자신의 심리내적 상태와 치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상담자가 점진적인 거리두기를 사용함으로써 내담자는 관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느낌 및 반응을 자신의 관계도식 안에 통합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관계 반응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은 상담관계에서도 상담자의 피드백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차단하거나 잘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담자의 이러한 태도는 상담 초기에 협력적인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에게는 마음챙김 명상 등을 통해 상담 장면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개방적이고 통합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David, 2007). 한편, 상담자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내담자와 적절한 치료적 거리를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내담자가 새로운 관계패턴을 형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즉, 상담 초기에는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및 패턴화된 행동반응을 고려해서 내담자와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유지하도록 허용하지만, 치료 회기가 진행되면서 내담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회피적인 관계패턴이 적응에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는지를 파악

하고, 더불어 내담자가 유지하고 있는 대인관계패턴이 내담자 자신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일상적인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담자는 지금-여기에 초점을 두고 치료 회기 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내담자의 저항을 다루거나, 치료적 관계에서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Katherine & Brent, 2009). 또한 상담자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탐색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내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자기가치감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상담과정에서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개입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Collins et al., 2004)를 토대로 애착 작동모델에 영향을 받는 인지적 변인으로 인지적 개방성을 채택하였고, 인지적 개방성을 구인하기 위해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애착 작동모델과 관련이 있는 인지적 변인으로서는 인지적 개방성 이외에도 선택적 주의, 기억, 대인관계적 구성개념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적 개방성을 구인하는 방법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즉, 인지적 개방성 이외에도 애착패턴에 영향을 받는 인지적 변인들이 있으며, 인지적 개방성을 나타내는 다른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애착체계와 관련된 인지적 측면을 받

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개념과 측정도구들을 함께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피드백의 맥락 및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어떤 맥락에서 애착불안 또는 애착회피가 피드백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피드백의 맥락과 내용, 피드백을 주는 상대방의 태도나 방식, 그리고 피드백을 주는 대상과의 관계 등에 따라 피드백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단순히 피드백에 대한 반응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또한 함께 포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애착대상을 연인 또는 친구로 응답한 참여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애착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모델은 ‘부모-자녀관계 모델’과 친구나 연인관계를 반영하는 ‘또래관계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Collins & Read, 1994). 두 모델 모두 애착대상과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고, 애착대상이 보여주는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 안전함을 느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Hazan & Shaver, 1987). 하지만, 상호 호혜적인 보살핌을 주고받는가의 여부와 성적인 특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Shaver & Hazan, 1988), 이 두 모델을 따로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염두에 두고 성인애착 검사지를 평정한 참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애착대상을 구분해서 모형의 적합도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애착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관계가 다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3개 지역 8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단위의 표집을 실시하여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교육배경,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다양한 대상들에게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결과와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2009). 2008학년도 학생생활상담소 상담 호소문제 분석. 학생생활상담, 27, 서울: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김민선, 서영석 (2010).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 분류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13-434.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이은정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경 (2004). 대학생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

- 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장희, 조윤주 (2006). 대학생들의 낭만적 애착과 대인관계문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7), 113-124.
- 양혜선 (2004). 애착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2008). 2007학년도 상담센터 활동 사항. 연세상담연구, 24, 서울: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 이민수 (2000). 가족 응집력과 자아분화가 공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규혁 (1997).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심리측정학적 재조명: 확인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1(1), 157-189.
- 장휘숙 (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조은경 (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조용래 (2005). 생활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 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81-298.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08).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활동현황. 학생생활연구, 1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 한정아, 심홍섭 (2005). 대학생의 자아분화,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65-981.
-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 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 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Baldwin, M. W., & Fehr, B. (1995). On the instability of attachment style ratings. *Personal Relationships*, 2, 247-261.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 London: Routledge.
- Brennan, K. A., & Bosson, J. K. (1998). Attachment-styl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d reactions to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base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99-71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 Carnelley, K. B., Israel, S., & Brennan, K. A. (2007). The role of attachment in influencing reactions to manipulated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968-986.
- Cohen, J., Cohen, P., Aiken, L. S., & West, S. G. (2002).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Collins, N. L., & Feeney, B. C. (2000). A safe haven: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on support-seeking and caregiv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053-1073.
- Collins, N. L., Guichard, A. C., Ford, M. B., & Feeney, B. C. (2004). Working model of attachment: New developments and emerging themes. In J. A. W. S. Rholes &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196-239). New York: Guilford Press.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53-90). London: Jessica Kingsley.
- Creasey, G., & Hesson-McInnis, M. (2001).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nflict tactics i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85-9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avid, J. W.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Davila, J., Burge, D., & Hammen, C. (1997). Why does attachment styl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826-838.
- Derogatis, L. R. (1977). *The SCL-90 manual: Scoring, administration and procedures for the SCL-90*. Baltimore: Johns Hopkins School of Medicine. Clinical Psychometrics Unit.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Fonagy, P. (2005). *Attachment Theory and*

- Psychoanalysis*. 반건호 역.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안양: 빈센트.(원서출판 2001).
- Fraley,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and the suppression of unwan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80-1091.
- Fraley, R. C., & Shaver, P. R. (1998). Airport separations: A naturalistic study of adult attachment dynamics in separ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198-1212.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77-114). New York: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 103-115.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Guardia, J. G. L.,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67-384.
- Hamilton, C. E. (2000).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1, 690-694.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151-177). London: Jessica Kingsley.
- Katherine, D. D., & Brent, M. (2009). Experienced therapists' approach to psychotherapy for adults with attachment avoidance or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 549-563.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Kirkpatrick, L. 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 123-142.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rose, S., & Bernier, A. (2001). Social support processes: Mediators of attachment state of mine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96-120.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R. M., & Liu, H. T. T. (2001). Coping with intergenerational family conflict: Comparison of Asian Americans, Hispanic,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410-419.
- Lewis, M., Feiring, C., &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 707-720.
- Li, M. H., & Yang, Y. (2009). Determinants of 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and avoidance: A path analytic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6*, 155-176.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151-173.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0.
-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 Lopez, F. G., Mauricio, A. M., Gormley, B., Simko, T., & Berger, E.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 459-464.
- Lopez, F. G., Mitchell, P., & Gormley, B. (2002).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60-467.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Mallinckrodt, B., & Wei, M. (2005).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 358-367.
- Marrone, M. (2007). *Attachment and Interaction*. London: Jessica Kingsley. 이민희 역.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서 출판 2000).
- Mikulincer, M. (1995). Attachment style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203-1215.
- Mikulincer, M., & Arad, D. (1999). Attachment working model and cognitive openness in close relationships: A test of chronic and temporary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710-725.
- Mikulincer, M., & Florian, V.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emotional and cognitive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143-165). New York: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Hirschberger, G., Nachmias, O., & Gillath, O. (2001). The affective component of the secure base schema: Affective priming with representations of proximity maintenance.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305 - 321.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17-925.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1). Attachment theory and intergroup bias: Evidence that priming the secure base schema attenuates negative reactions to out-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7 - 105.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 - 320.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Ryan, R. M., Stiller, J.,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agi, A., van IJzendoorn, M. H., Scharf, M., Korean-Karie, N., Joels, T., & Maysel, O. (1994). St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 psychometric study in young Israeli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771-777.
- Scharfe, E., & Bartholomew, K. (1994).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adult attachment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s*, 1, 23-43.
- Seiffge-Krenke, I., & Beyers, W. (2005). Coping trajectories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Links to attachment state of mind.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 561-582.
- Shaver, P. R., & Hazan, C. (1988). A biased overview of the study of lo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73-501.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133-161.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34-446.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 - 246.
- Sroufe, L. A., & Waters, E. (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Valentiner, D. P., Foa, E. B., Riggs, D. S., & Gershuny, B. S. (1996).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female victims of sexual and nonsexual assaul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455-458.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Veit, C. T., & Ware, J. E, Jr. (1983).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30-742.
- Wei, M., Heppner, P. P., & Mallinckrodt, B. (2003). Perceived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38-447.
-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W., & Abraham, W. T.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ttachment and negat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01-212.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 Weiss, R. 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 171-194). New York: Basic Books.
- Woodhouse, S. S., & Gelso, C. J. (2008). Volunteer client adult attachment, memory for in-session emotion, and mood awareness: An affect regul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197-208.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5).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권석만 외 역. 심리도식치료.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3).

원고접수일 : 2010. 06. 05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7. 15

게재결정일 : 2010. 08. 13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Distr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Reactions to Significant Others' Feedback, Emotional Coping, and Social Support Seeking

Ha Yan An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On the basis of adult attachment theory and extant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model representing the complex interplay of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distress,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ree mediators (i.e., reactions to significant others' feedback, emotional coping, and social support seeking) by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of SEM with data from 401 college students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model fit the data well. The link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partially mediated by two of the feedback variables (i.e.,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 and subsequently by emotional reactivity. The link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problems was fully mediated by indifference to feedback, emotional cutoff, or social support seeking. Also, emotional cutoff partia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reactions to significant others' feedback, emotional coping, social support seeking, psychological distress, interpersonal problems*